

# 진도군, 산림 보호 단속 강화

### 봄철 산불 예방·자생식물 불법채취 단속

### 민간헬기 임차·39명 산불예방진화대 선발

진도군이 봄철 산불 예방과 함께 자생식물 불법 채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진도군에 따르면 산불 예방·진화 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헬기 임차와 39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해 농산 폐기물과 산림 인접지 소각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춘란 개화 시기를 맞아 불법 야생화 채취자들이 진도군 산야로

모여 들고 있어 산림보호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노출, 비노출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4월말까지 사법경찰관, 6개 자생 단체 회원 등 순시관 지도원 200명을 취약지에 투입, 춘란·두릅 나무 채취, 황칠나무 절단, 하수오 굴취 등 불법 채취자 단속과 검거를 실시한다.

불법야생화 굴취 단속 결과 ▲3명(2013년) ▲3명(2014년) ▲1명

(2015년) ▲2명(2016년)을 검거했으며, 앞으로도 산림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불법 행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단속에서부터 적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불법 행위자에게는 계도가 아닌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자생식물·자연석을 체계적으로 보호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진도군 자생식물 및 자연석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2013년에 제정·운영하고 있다.

진도=조성용 기자

# 진도군, 영세농가 소형 하우스 설치 지원

### 경작면적 0.8ha 미만·농가당 100평 하우스 1동 50% 보조

진도군이 규모화 영농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품·영세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소형 하우스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임차지를 포함한 경작면적이 0.8ha 미만으로 시설 하우스

를 보유하지 않은 영세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가당 100평(330㎡) 하우스 1동을 보조 70%, 정부담 30%의 비율로 지원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 한다.

군은 농가면담 등 현장 평가로 지원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 올해 7농가 7동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지역 특색에 맞는 특색작목 육성으로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 “청산도 슬로길, 문화관광해설사 안내로 더욱 즐겁게”

### 완도군, 18명 대상 보수교육·관광객 맞이 민반



완도군은 오는 7일부터 개최되는 2018청산도슬로길기축제를 맞아 청산도 문화관광해설사 18명을 대상으로 지난 29일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관광객 맞이에 민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청산면사무소에서 열린 보수교

육은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론교 해설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해설사의 마음가짐 및 해설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론교 해설사는 교육에서 “안내할 대상을 미리 파악하여 눈높

이에 맞는 관광해설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스토리 중심의 간단명료한 해설로 관광객들을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산면 문화관광해설사 18명 전원은 “해설사의 역할은 관광지 설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도의 홍보대사이자 얼굴이라며, 청산도 슬로길기축제 시 관광객들에게 다 같이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맞이 하자”고 뜻을 모았다.

김영주 청산면장은 “관광해설사 여러분들이 청산도 관광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청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2018청산도슬로길기축제는 오는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31일간 청산도 일원에서 열리며, 슬로길 11개 코스별 프로그램과 산악인 임흥길 대장과 함께 하는 힐링토크 등 8개분야 51종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완도=김광수 기자

# “장흥 청태전, 발효차 천 년의 전통을 잇는다”

### 전통 차 전문가 과정 개강·차 산업 전문가 육성



장흥군은 지난달 28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교육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차 전문가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통 차 전문가 과정’은 차 문화와 역사를 토대로 한 이론 교육과 제다 실습 등 15회 차로 구성됐다.

특히, 차 종류와 기능성, 녹차·

발효차 제다, 청태전 맛내기 등의 교육을 통해 차 산업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목포대 이주현 교수는 “천 년 전통을 가진 장흥 청태전의 대중화에 성공한다면 장흥은 차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계적인 차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이번 교육 과정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27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청태전은 장흥을 비롯한 남해안 지방에 내려오는 전통 발효차로 최근 연구에서 항염증 효능이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

군은 다변화 하는 세계차 시장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대표 전통 차 청태전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이 같은 전문가 양성에 앞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장흥=김승필 기자

# 여수시,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 건립

### 소리면 대곡마을에 660㎡ 면적·연간 1만2000상자 생산

여수시가 벼 우량육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시설을 건립했다.

소리면 대곡마을 친환경단지에서 들어선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은 660㎡ 면적으로 연간 1만2000상자의 육묘를 생산할 수 있다.

사업비는 총 2억2000만 원이 투

입됐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국비에 시비가 포함됐다.

이곳에서 생산된 우량육묘는 여수시 친환경학교급식 쌀생산 단지에 공급된다.

공동 육묘장은 농산물 건조·곡물보관 창고 등 지역 농업인의

공동 작업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 지역 농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은 우량묘 생산은 물론 농업인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비도 절감하는 일석산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벼 품종 단일화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여수=송기홍 기자

# 무안군,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위한 전문교육 진행

### 오는 12일까지 체형 밸런스 테라피 주제 총5회 진행



무안군은 자원봉사 활성화와 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3월 29일

부터 4월 12일 까지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체형 밸런스 테라피”를 주제로 매 주 월·목 총 5회 진행되며, 교육과정은 두통 및 거북목 개선을 위한 마사

이번 전문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24명의 자원봉사자는 교육 이수 후 마을 단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운동, 마사지 등 수요처에서 필요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 원활한 연계 및 자원봉사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도 전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자원봉사자 활동을 위한 신규 자원 봉사자 발굴에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지역광고·미케팅·정리·편집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